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6호 [루계 제25134호] 주제 104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사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명작폭포로 맞이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초소와 일터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용을 향조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당에 애국충성의 마음이 깃든 자랑스러운 선물은 한 가지라도 더 마련해드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배열장을 벌려나가는 천민군민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격동적인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백배의 힘을 모아 제7차대회를 위한 대회를 계기로 당과 수령에 대한 자신들의 애국충성의 전기를 겸종발했다는 비상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당에 충성을 향해 고무주동하였던 당시에는 혁명의 척후대, 전시기, 대회를 전후하여 창작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려』, 『통지에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흔원』과 같은 명곡들은 수령옹위의 대진군, 일심단결의 대진군, 애국충성의 대진군에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메아리로 오늘도 힘차게 울리고 있다.

우리 당은 사상의 기수, 혁명의 척후대, 전시기의 나팔수가 되어 일련단성을 담은 밤들이 전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적을 대를 두고 값들이 내세워주고 있으며 새 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체문화예술의 친환한 개화기 펼쳐 중앙장을 응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복서리, 승리의 진군과 빛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할 때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출판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이며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기여하는 작품을 선도하고 적극 추동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체문화예술의 친환한 개화기 펼쳐 중앙장을 응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복서리, 승리의 진군과 빛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할 때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출판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이며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기여하는 작품을 선도하고 적극 추동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주체문화예술의 친환한 개화기 펼쳐 중앙장을 응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복서리, 승리의 진군과 빛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나가야 할 때이다.

문화예술부문이 끌어들여온 나라에 혁명적기획과 전투적방안이 차넘치게 되며 시대의 기념비적명작들이 돌아나와야 한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진군길에 어떤 편경과 힘장, 신념과 데도를 가지고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길이 새겨주고 있다.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오늘의 충공 견본은 글 사용으로 적을 제압하고 글을 통해 전시판과 난판을 끌고나가야 할 사상전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최고의 표창을 안겨주고 있다.

사상전선의 전초병답게 마지막까지 헌법을 깨닫고 빠져나온 당중앙장을 응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문학예술의

맞을 때만 해도 전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문학예술전선에서 명작대풍을 안아온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당과 수령에 대한 자

신들의 애국충성의 전기를 겸종발했다는 비상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당에 충성을 향해 고무주동하였

던 당시에는 혁명의 척후대, 전시기, 대회를 전후하여 창

작된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려』,

『통지에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흔원』과 같은 명

곡들은 수령옹위의 대진군, 일심단결

의 대진군, 애국충성의 대진군에 천

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메아

리로 오늘도 힘차게 울리고 있다.

우리 당은 사상의 기수, 혁명의 척

후대, 전시기의 나팔수가 되어 일련단

성을 담은 밤들이 전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적을 대를 두고 값들이

내세워주고 있으며 새 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들의 봉사를 끌어당기고 있다.

당창건 70돐경축 1만명 대공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창조조

정은 위대한 밤들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적예술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확고한 개성의 파시이다. 10월의 경축무대에 걸쳐온은 주체문화예술발전의 대서사시적특화은 우리 창

작가, 예술인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진군길에 어떤 편경과 힘장,

신념과 데도를 가지고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길이 새겨주고 있다.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오늘의 충공 견본은 글 사용으로 적을 제압하고 글을 통해 전시판과 난판을 끌고나가야 할 사상전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최고의 표창을 안겨주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와 종자, 형상세계를 찾아쥐고 속도

전을 떠밀어 최단기간에 작품을 완

성하여야 한다. 황금해의 새 역사가

의 위대성을 사상에 술적으로 강명깊

게 보여주는 문학에 술작품들을 창작

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천만군민

이 봉투는 다함께 수령송가, 로동

당찬가의 예아리가 꽂자 넘치도록

으며 접쌓이는 난판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고 있다.

창작가들은 당의 옹دة 한 구상이

현실로 절쳐지는 대고조전구들에 전

지를 차지하고 저항한 투쟁파 변혁

의 전진을 실감하면서 대중과 강정파

파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작의 소재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더 높이 울려퍼진다

로동당시대의 멋쟁이 건축물로 변모된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 차넘치는 사랑과 은정

사연깊은 만경대학생과 함께 드넓은 부지에 풀지게 자리잡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파교교육장기지이다.

얼마전 새로 개관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소식과 궁전공식이 성대히 전개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안겨온 기쁨의 여운은 참으로 크다.

우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것들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궁전의 정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느라니 오늘도 수령님들께서 아이들을 어서 오라 순서지어 놓으셨던 것이다.

로동당시대의 멋쟁이건축물로 변모된 궁전의 자태는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해빛을 받아 설명하게 빛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려가자 미래로!』의 글씨, 외부를 장식한 화강석과 고급건재들, 건물의 광활남과 가구선을 이루어 마치 사람이 두팔을 벌리고 있는 듯 한 모습, 앞미당에 꾸려진 이채로운 허리띠와 찰리발, 새로 건설한 학교…

후대들을 안아키우는 어머니당의 품으로 품위있게 형상되고 꾸려진 궁전은 걸만 보아도 다른 나라에서도 가질수도 흥미낼수도 없는 진짜

물이라는것이 알렸다.

우리를 품은 갑작히 맞이한 궁전의 책임일꾼인 리군철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해로운 손길이 역력히 어려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의 11월에도 또다시 우리 궁전을 찾으시여 대해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를 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김월성
1989.4.15

궁전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혁명관이 담겨져 있는 듯싶은 천필명제를 밝고 정중히 잘 모시었다고, 주워 같은 천필의 글자를 한자란자 읽어보았더니 우리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염마나 사랑해 서였는가를 뜻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새로 꾸려진 혁명사적교양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보여주는 사직률과 자료들

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리고, 궁전의 일군들과 교육원,

학생소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통하여 교양사업을

잘리고 있다. 그리고 대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설맞이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열미나 좋으라는 생각에 기습이 미여지는것만 같다고 갈리신 윤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이 얼마나 뜨거워였으신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의 11월에도 또다시 우리 궁전을 찾으시여 대해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찾으시여 대에 같은

사랑과 응酬을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홀에 들어서니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명이 안겨왔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주체공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긍지높은 한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끌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2015년은 저물어간다.

이 한해 우리 주체공업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강회깊이 더듬어볼 때 제일 선창으로 그리고 가장 뚜렷이 안겨오는것이 있다. 국산화의 거센 불길이다. 탄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 국산화를 생명으로 끌어쥐고 보무당당히 그 길에 들어선 애국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들려온다.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가도 보고 느낄수 있다. 모든 생산단위들과 지도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이전시기에 비활약하는 혁신적인 국산화표들을 세우고 있다. 그 어떤 날의 식이 아니라 제힘을 밀고 천리도 지척으로 굽어보며 최상의것을 고의로 창조하려는 기풍이며 투철한 힘으로 헌신하는 기풍이다.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되며 수입에 걸리게 된다. 수입병은 민족적 자존심을 솜먹여 자립성과 악화시키며 저도모르는 사이에 눈뜨고 사대부국노로 되게

처 자랑할만 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들이 늘어난 해라고도 말할수 있다. 우리 식 현대화의 기준이 더 세로와졌고 실천 또한 불같아졌다.

평양아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과정을 놓고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신안감의 맹처나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 종업원들, 현판 단위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불과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한데 한데 손

에 꿈기 아름한 현대적인 첨단설비들은 낙의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했고 힘든 기술적 문제들도 저지 않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내겠다는 자력자강의 신념과 의지를 무쇠건기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자랑찬 결실을 안아오고자하였다.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되며 수입에 걸리게 된다. 수입병은 민족적 자존심을 솜먹여 자립성과 악화시키며 저도모르는 사이에 눈뜨고 사대부국노로 되게

하는 무서운 독소이다. 자기 두뇌를 믿기 어려워하고 현대화문제를 놓고 남을 넘겨다보면서 자금부터 따져보는것은 우리 시대 일군의 일본본사이다.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이는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떨어진 국산화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신안감의 맹처나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 종업원들, 현판 단위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불과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한데 한데 손

에 꿈기 아름한 현대적인 첨단설

비도 특별히 큰 감명을 받게 되는것이 바로 국산화의 우월성과 위력이다. 고정 및 이동식자동먹이뿌리기, 메기수작기 등의 현대적인 설비들과 종합사료가공장, 밀가루사료가공장 등 사료 및 먹이첨가제생산공정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제세운 창조물이다. 이렇듯 궁지높은 결실이 지난 시기 한때 900여t밖에 안되면 생산량을 1800여t으로 끌어올린 성과에 이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는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가 아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혁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만이 우리 식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의 뼈마루에 더 높이, 더 빨리 치달아 오를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빛내인 올해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이 대세하게 휘몰아친 해였다. 김종태 전기기기판차연합기기소에서 우리 식 지하전동차개발에 성공

최상의 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식으로

한 소식이 온 나라 천만군민을 품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하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본사기자 김충성

로 새긴 2015년은 온 나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

휘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

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

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장을 통하여 승리의 신실드 높이 충돌격 앞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의 결단, 성의 있는 노력

거제의 통일열기가 차넘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조국해방 일흔 번이자 민족해방 70년이 되는 올해는 거제의 드높은 통일열망과 더불어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애국의 결단과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이어져왔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높은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임종수령의 험생의 네월이니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에 우연업을 부른다는 북일강국을 일제세워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 공화국은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

천지를 진감시킨 통일의 뿌성

올해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로선, 우리민족끼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 뛰어있게 표시된 긍지높은 한 해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용해신년사에서 지난해内外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조성된 양증한 정세와 북남관계의 현 실태를 분석 총회신년회 기초하여 조국해방 일흔 번이 되는 올해에는 민족의 힘을 합쳐 대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펼쳐주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때 대한 문제, 냉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 시비하면서 체제대결을 주구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의에 따라 민족의 대단한 대단결을 이룩함에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짝 하여 끊어진 민족적 뉴라이 협력을 막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년사에서 세시현과 파업들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며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절박

로부터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듬에 맞게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은 걸림마를 분쇄하고 민족의 운명은 위기에 서 구원되었다.

북장다단련된 이해의 북남관계를 디들이 키워면서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것은 북과 남이 민족의 운명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의지를 알고 달려들었다면 꼭 복할 난관이 없지만 민족공동의 기회만 놓치지 말고 《5·24 조치》제례와 금강산판광재개 등 북남관계 개선의 현안문제를 빨리 타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이러한 여론에 밀려 우편 남조선당국과 『세우리당』은 안철부정을 하면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 『신년사에서 부여부여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전체적으로 궁정적이이라는 대로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전제되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북의 메가통급 남북회담제』에 정기적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

는 시간이 갈수록 온 거제의 심금을 더욱 힘들고 나와의 한결같은 지지로 불리워지면서 온 한동안 삼천리강과 함께 그대로 보도하였다.

연론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부분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두시였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1위 원장은 남북회고위급회담 못 할 리유 없다.』,